

# 신재생에너지 기술·환경보호 제품 ‘한 자리에’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오는 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65개 기업 참가 중기 판로 개척 수출상담회·포럼·체험행사 ‘다채’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환경보호 제품을 한눈에 보여줄 호남권 최대 규모의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을 연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2024)’을 개최한다.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은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함께하는 ESG, 참여하는 KEET’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ESG의 핵심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동반성장 페어, 수출상담회,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B2B 상담회를 통해 공기업 위주의 전시회에서 지역 중견기업으로 참가를 확대하고 에너지·기후 포럼, 시민참여형 행사, ESG 선도 전시회를 새롭게 마련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265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에너지 기술과 다양한 환경보호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첨단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에너지 예측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전시되며, 전기차와 수소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광주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의 첫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말한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기업 80개사, 중소기업 127개사가 참여해 기업 간 매칭, 사례발표, 정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상담회는 1:1비즈니스 상담, 해외 바이어 초청, 산업별 특화 상담회 등으로

진행되며 전국 지역별 산업진흥원이 모여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포럼, 수행기관 교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세미나와 포럼도 열린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세미나와 포럼에서는 ESG 경영 우수사례부터 신기술 소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에너지·환경공학 분야에서 객석식 교수가 ‘한국은 왜 기후환경 에너지를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기후·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매력은 ‘Net-Zero Market’이라는 이름의 시민 체험형 행사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파쇄지 키링 만들기 △친환경 비누 제작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배운다.

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사무국(062-611-2291~2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을 통해 친환경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기후환경 및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024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기후환경과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롯데마트, 고품질 신선식품 선물세트 선보

롯데마트가 그로서리 역량을 담아낸 고품질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2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역대 가장 기간 열대야가 기록될 만큼 폭염이 지속되며 농산물 작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라 대표적인 추석 선물세트 품목인 햇과일의 품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악화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자, 국산 신종품 사과와 배를 선물세트에 준비했다. 사과 선물세트로는 ‘영주 아리수 사과’를 7만9000원대에 판매한다. 국내 개발 품종인 아리수 사과는 탄저병과 같은 병해에 강하고, 고온에서도 착색이 잘되

는 것이 장점이다. 영주 아리수 사과 선물 세트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300그램(g) 내외 크기의 당도 12 브릭스(brix) 이상 고품질 과실만 엄선했다. **나다운 기자**

제 1134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7 9 13 19 24	2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7억5568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223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0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지역 중견건설사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 절차 개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에 대해 두 번째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남양건설)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있다. 회생 신청의 기간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인 남양건설 마찬호 대표이사과 제3자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은 오는 10월1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한달 가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남양건설이 올해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은 전국 각지 현장 41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 창원 등 현장 8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회생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짊어 져야 할 채무는 1080억원대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금융기관·각 공정별 하도급·협력업체와 개인 등 1039명에 달한다.

앞서 남양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인 지난 2010년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1차 신청 당시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 지난 회생계획안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400여억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경영난 악화로 지난해부터는 갚지 못하고 있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마찬호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은지 기자

## 전남 전문건설협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 환영”

사업 완료 후 이동거리 21분 단축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고성수)는 “완도에서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의결된 대해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이 완

료될 경우 완도에서 강진까지 이동거리가 21분으로 단축돼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물류 등 많은 분야에서 전남 중남부 지역에서 서남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도민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1조6000억원의 사업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전문건설협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국가간선도로망 확충 노력에 감사한다”며 “완도~강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 금감원 Q&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문** 민원인 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는 가입사실확인서에 해당 특약의 보상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답** 금융감독원은 A에게 가입사실 확인서에 ‘이 증명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애)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장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문** 민원인 B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가입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

하였으므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답** 금융감독원은 B에게 보험가입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안내받았다는 의미로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어 보험료 반환은 어려움을 안내했습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편,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 민원인 C는 LA에서 도쿄를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LA

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어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했습니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답**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1332